

# “어머니는 몸이 아파도 무대에 ... 에너지의 화신 이었다”

고 이난영 딸·김시스터즈 리더 김숙자씨 인터뷰

### 이난영 탄생 100주년 맞아 내한 헌정 공연서 노래 美 TV쇼 출연 탓 어머니 장례식 못 가 지금도 가슴 아파

“위대한 어머니셨죠. 어머니는 무대에 서면서도 20살 때부터 32살까지 열정을 날아 일곱 자식(5명 사망)을 홀로 키우셨어요. 100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이셨죠. 몸이 깨지더라도 일하셨으니까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고(故) 이난영(1916~1965)의 딸이자 김시스터즈의 리더 김숙자(77)씨는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그는 지난 4일 서울 블루라이트 라이브홀에서 열린 ‘이난영 탄생 100주년 헌정 공연-해피 시스터즈데이’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은 시스터즈 계보를 잇는 걸그룹 미미시스터즈와 바버렛츠가 기획해 이난영 가문에 헌정한 무대로 김씨가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그녀는 “어머니는 남의 애들까지 깨물어주고 예뻐하실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해 자식도 많이 낳았다”며 “희생으로만 사신

어머니 노래만 나오면 운다. 모두에게 어머니는 한 분이니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김씨는 1965년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시스터즈가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 등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이 나간다는 미국 CBS 인기 TV쇼 ‘에드 쉐리번 쇼’에 출연(총 22회 출연)하는 등 현지를 휩쓸고 있을 때다. 1953년 결성된 김시스터즈는 1959년 아시아 걸그룹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원조 한류 그룹이다.

“1년 내내 투어와 ‘에드 쉐리번 쇼’ 계약으로 일정을 취소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에 못 간 고통이 말도 못해요. 매니저 집에 가서 비행기 표를 가슴에 안고 많이 울었죠. 어머니가 마지막 통화에서 ‘숙자야, 나 너 못 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김시스터즈는 이난영과 작곡가 김해송 부부의 두 딸 숙자·애자(1987년 작고), 조카 김민자(이난영의 오빠이자 작곡가 이



1963년 미국 방문 때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난영(오른쪽 두 번째)과 김시스터즈.

〈이난영 기념사업회 제공〉

봉룡의 딸)로 구성됐다. 이난영은 한국전쟁 당시 김해송씨가 납북되고 살던 집이 폭격을 맞아 무너져내리자 ‘먹고 살기’ 위해 오빠 이봉룡과 함께 ‘시스터 그룹’을 만들었다.

김시스터즈는 빼어난 가창력은 물론 가야금, 장구, 기타, 색소폰, 트럼펫, 아이리시 배커프 등 동서양 악기 수십 가지를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블루라이트 라이브홀에서 열린 이난영 탄생 100주년 헌정공연 ‘해피 시스터즈데이’ 무대에서 김숙자(왼쪽 세번째)씨가 미미시스터즈, 바버렛츠와 공연을 하고 있다.

능숙하게 다루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난영은 가수였지만 김시스터즈와 김브러더스를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제작자였다.

그는 때론 무대에 서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떠올리며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는 무대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있었다. 몸이 정말 아파도 무대에 올랐고 내려오시면 까부라졌다”며 “그걸 보

고 자라서인지 한 달에 한번 ‘그날’이 오면 화장조차 하기 싫었지만 우리끼리 한국말로 ‘청중을 살려놓자’고 얘기하며 힘을 냈다. 무대에서 끝장 보는 에너지는 어머니가 물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인 남편과 결혼해 1남 1녀를 둔 김씨는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 등지에 형제·자매들이 많이 산다며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만나 밥을 먹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샌디에이고에 모두 모여 한 호텔에서 우리끼리 밤새 노래하고 놀았어요. 무대와 음악밖에 모르던 부모님 영향인지 우리 모두 음악 하는 사람과 결혼 안 했어요.”

6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숙자씨는 “돌아가면 남편에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며 “지난해 한국에 왔을 때가 10년 만이었는데 좀 더 자주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손해보험협 호남본부 교통안전 아광팔찌 전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최근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를 방문해 교통안전용품 아광팔찌 1000개를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제공>

## ‘광주시 도서관 문화마당’ 시청광장서 열려



광주시립도서관(관장 안미영)이 주최하고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대표 심명자) 주관한 ‘제5회 광주시 도서관 문화마당’이 지난 4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제공>

## 김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혈액학회 이사장 선출

### 정익주교수 임상암학회 부회장에



김형준 이사장 정익주 부회장

화순전남대병원 김형준(혈액내과) 병원장(혈액내과)이 대한혈액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또 전 전남지역암센터 소장인 정익주(중앙내과) 교수가 한국임상암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형준 병원장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혈액학회 제57차 총계 학술대회기간 중 평의위원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김형준 병원장은 난치성 희귀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특정변이를 가진 조혈모세포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연구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한·독간 가교역할을 통해 독일 프라운호퍼IGI 공동연구소를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화순전남대병원에 유치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혈액학회 총무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대한혈액학회는 혈액질환의 임상·연구 등 혈액학의 발전을 위해 1958년 6월 창립된 학술단체로, 회원수는 1600여명이며,

매년 봄·가을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정익주 교수는 지난달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제14차 정기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정 교수는 전남지역 암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2014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임상암학회는 임상종양학에 관한 지식증진과 관련의료진 간 교류·협력을 지원, 암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창립됐다.

혈액종양내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750여명의 전문의와 중앙간호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김동기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6번째 연임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버스조합) 제12대 이사장에 김동기(사진·78) 현 이사장이 선출됐다.

광주버스조합은 지난 2일 제28기 정기총회를 열고 출석 조합원 전원 만장일치로 김 이사장을 제12대 이사장으로 추대, 선출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버스조합은 광주지역 시내버스 10개 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2년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내리 6번째 연임을 하게 됐다. 전일버스(유) 회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한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김 이사장은 두 차례 대통령 표창과 세마를 훈장 협동장, 국민훈장 석류장, 은탑산업훈장, 광주시 시민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 최권일기자 cki@

## 안용훈 전 도시재생국장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취임

안용훈(59) 전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이 지난 3일 제6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6월2일까지다.

안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영전략으로 ‘3무(無) 3신(新)’을 강조했다.

3무는 ▲타당공론하는 방만경영 ▲불필요한 예산 낭비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재임 기간 동안 3가지 사안은 반드시 척결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1등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신은 공단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환경관리 혁신 ▲단순한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환경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핵심역량 강화 ▲조직문화 쇄신, 열린 소통을 통한 상생의 조직



문화 구현 등이다. 신임 안 이사장은 1978년 건축직 7급으로 공직에 발을 내딛던 뒤 38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광주시 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출신으로 대동고, 조선대 공대를 거쳐 조선대 산업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에는 광주 원도심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편, 광주환경공단은 본부와 6개 사업소로 이뤄져 있으며, 연간 예산은 680억원에 이른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김정대(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이혜영씨 장남 병국군 박형기·허정선씨 장녀 건희양=4일(토) 오전 11시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 3층.
- ▲송승중(광주세계수영대회 지원단장)·김복순씨 장남 대웅군(광남일보 기자) 김영배·김순희씨 장녀 유림양=11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제이아트 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plex.
- ▲박복만·권순정씨 장남 찬영군 박경석(광주일보 첨단지국장)·박금자씨 장녀 예슬양=11일(토)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N타워컨벤션웨딩홀 2층 아이리스크홀 063-253-9000.
- ▲안준현(전 광주시 공무원)·김경남씨 장남 교석군 범형렬·이현덕씨 장녀 헤민양=11일(토) 낮 12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볼룸홀, 010-9941-0041.

### 등문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장열)

월례회=7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화랑궁회관 062-224-1800.

### 종친회

-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재광 이사회=7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화랑궁회관, 문의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 ▲경주배씨 고려 항동(抗東) 삼벌초 배중손 장군 봉행 광주종친회=15일(수) 낮 12시 진도군 임회면 골포리 정충사, 15일 오전 8시 광주동부경찰 뒤편 버스출발, 문의 010-8623-4949.

###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광주생명의전화 한마음가정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233-9192.
- ▲승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모집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 해외봉사활동자 모집=6월6일까지 선착순 모집(인원 제한). 의료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생필품 전달 및 기타봉사활동 가능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누구나 가능. 봉사활동 기간과 장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캄풍스푸주 광주진료소.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세희망나무 홈페이지(http://hopetree.kr) 참여마당 코너 또는 062-675-7118.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수강생=6월10일(금)까지 핸드마사지 및 네일아트 교육, 봉사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 가능, 문의 062-228-1365.
- ▲광주향교 시민예절교실 무료교육생=6월7일~10월13일 2016년 시민대상 예절교육 수강생, 가정·공공·성년·수련·혼인·상장례 등 무료교육으로 교재는 개인 구입, 문의 062-672-7008.
-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문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충만재가족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201호 故김봉현 님(남/78세)</b> 女/婿 : 김진옥/나현수, 은이/배관배, 은진/임영훈, 은주/우진/도연/이주원, 민성/이지훈, 경원/이민호 未亡人 : 박명순 *발 인 : 6월 7일 *장 지 : 영락공원	<b>401호 故황금덕 님(여/83세)</b> 子/子婦 : 박철수/최분임, 우성/김용자 女/婿 : 박연삼, 영삼/장삼수 *발 인 : 6월 7일 *장 지 : 망월묘역
<b>101호 故문용선 님(남/67세)</b> 子 : 문동민 女/婿 : 문남희/강근수 *발 인 : 6월 6일 *장 지 : 영락공원	<b>102호 故최광표 님(남/72세)</b> 子/子婦 : 최진우/김선희, 진명 *발 인 : 6월 6일 *장 지 : 영락공원
<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	
<b>문의 (062)227-4000</b>	